불교운동 · 선지식 조명 학술연구 활성화

[2019 학술 · 문화재 결산]

3.1운동 100주년 연구들 활발
국보 미륵사지석탑 복원 완료
'원형 복원' 학계 논쟁 이어져
대행선硏 묘공학술상 첫 시상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돌


2월 27일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토론회에서 법륜 스님이 백용성 스님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다.


20년만에 복원이 완료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석탑 전경. 복원 후 원형 복원 논쟁으로 학계 논박이 이뤄졌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 기념촬영. 최우수상은 오용석 원광대 박사와 정재요 박사가 받았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기해년 한 해 불교학계와 문화재계는 대형 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3.1운동 100주년부터 〈불교평론〉 20주년까지 다양한 학술 이벤트들이 있었다.

3.1운동 100주년 학술행사 '다채'

올해 상반기는 3.1운동 100주년 학술행사들이 잇달아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계간 〈불교평론〉은 2월 28일 '불교, 조선 독립의 횃불을 들다' 를 주제로 3 · 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김성연 불교학술원 박사가 독립유공자 활동을 중심으로 불교계 독립운동 양상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백용성 조사기념사업회와 함께 2월 27일 기념 토론회를 열고 백용성 스님의 행적을 조명했다.

이런 학술대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뤄진 연구들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지난 2017년부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신문 · 잡지 · 판결문을 망라한 자료집과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집들을 발간한 것은 의미가 크다.

미륵사지석탑 복원… 원형 논쟁

20년 동안의 해체 보수 끝에 새로 복원된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지난 4월 30일 대중에게 공개됐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됐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추정에 의한 복원이 아닌, 원래의 부재를 81%까지 최대한 재사용해 석탑의 진정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감사원의 문제 제기로 다시 '원형 복원' 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행선 연구, 올해에도 활발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활발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대행선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첫 시상식이었다. 지난 7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제1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에 오용석 원광대 박사의 '대행선사의 간화와 주인공 관법에 대한 고찰' 과 정재요 경북대 박사의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가 각각 수상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근대 일본불교의 한국 진출과 활동 양상' 은 우수상을 받았다. 예비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묘공학술장학금의 첫 수여식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혜자는 심사를 거쳐 출 · 재가자 6명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행선연구원은 올해에도 정기학술대회와 4번의 계절발표회를 원만 성료했다.

지성불교 산실 〈불교평론〉 20돌

불교 유일 학술계간지 〈불교평론〉이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1999년 '20세기 한국 불교의 회고와 반성' 을 주제로 창간호를 낸 후 〈불교평론〉은 '기복(祈福) 불교' '대승불교 정체성' 등 불교계 민감한 부분을 과감히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특히 〈불교평론〉은 그동안 기존 불교학계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시대 조류와의 접점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다룬 기획만 1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매번 기획과 특집을 통해 불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고민했다.

〈불교평론〉이 만든 지성 간 토론모임 '열린논단' 은 지난 4월로 100회를 맞았다. 2009년 2월 27일 처음 시작한 열린논단은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행 선사 지식관, 共生의 지식관"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 개최
김영래 교수, '앎'의 인식 연구
"선사, 앎 · 행 둘 아님을 설해"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보인 지식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교육에 적용 ·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6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래 고려대 교수는 '대행 선사에 있어서 지식(앎)의 문제: 한마음인식론 시론' 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현행 학교교육의 근간인 서구의 지식관을 고찰하고 대행 선사의 지식관을 분석한 뒤 현대교육 지식관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구성주의적으로 구성되고 체계화된 학교지식은 과학적 지식과 이데올로기가 기묘하게 조합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육시스템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늘날 성장세대들은 학교지식으로 구성된 과학적 지식과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 있다"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영래 교수가 12월 14일에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6회 계절발표회에서 학술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지식관이 현대교육의 서구적 지식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진리를 이론적으로 파악해 '생각하는 오류' 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계했지만, 학문적 연구와 학습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대행 선사는 앎과 행이 둘이 아님을 설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행 선사에 있어서 근본적 의미의 앎은 '한마음의 앎(지혜)' "이라며 "한마음은 개체적 생명들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을 포괄하며 일체현상이 들고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참다운 자신의 발견 △앎과 행의 일치 등을 강조한 대행 선사의 지식관은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이를 통해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지식관을 "공생(共生)의 지식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행 선사는 생명의 근본 원리를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도리를 알아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 본래의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라면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공생의 지혜를 확장시키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더불어 사는 삶' 이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관법수행을 통해 한마음의 지혜를 개발해 나간다면 기존 지식들에 속수무책으로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지식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 학자들과 인연을 맺게 돼 감사하다. 계절발표회를 통해 여러 학문을 접하고 대행 선사상을 널리 알리는 방안을 살필 수 있게 된다. 발표회에 참여해 줘 사부대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바간시대 미술은 왕권 강화 목적"

부산박물관 · 서강대 동아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미얀마 불교미술을 고찰하는 학술대회서 "미얀마 중부 지역 바간에 위치한 로케테익판 사원을 통해 불교미술이 왕권 강화를 위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시 됐다.

부산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서강대 동아연구소(소장 강희정)와 공동으로 12월 13일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하정민 서울대 강사는 '바간시대 불전미술-바간 로케테익판 사원의 도리천 설법도와 연등불수기 본생도 연구' 를 발표하며 "바간 왕실의 정치적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로케테익판 사원 벽화가 활용 됐다"고 말했다.

하정민 강사는 "로카테익판 사원 주실 동벽에 도리천 설법도와 연등불 수기 본생, 〈라타나 숫타〉주제 벽화는 붓다를 왕과 동일시하는 존재로 여기며, 붓다와 같이 왕은 이 세상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오는 존재라고 시각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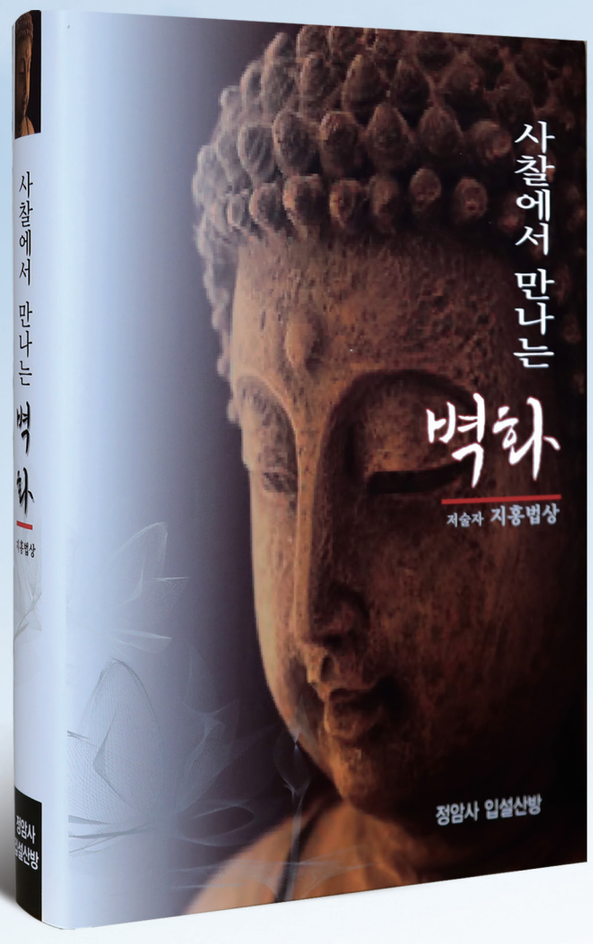
발표문에 따르면 "로케테익판 사원의 동벽 벽화 '도리천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표현' 은 바간에 널리 퍼져 있던 붓다의 초월적인 면을 강조하고, 동시에 왕을 붓다와 동격으로 위치시킴으로


부산박물관과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공동으로 12월 13일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적 제왕으로 왕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등불 수기 본생도는 석가모니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아 붓다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짠시따 왕은 전생의 공덕과 인연으로 석가모니 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바간에서 불교적 제왕으로 다시 탄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근거 〈라타나 숫타〉를 도해한 장면에서는 "붓다가 출현해 건강과 안정을 가져오는 존재로 묘사한다. 이 장면은 짠시따 왕과 관련한 예언 쉐지곤 명문을 떠오르게 해 백성들에게 행복, 풍요, 비옥함을 가져오는 존재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주에서 되추까지!

사찰에 가면 흔히 만나게 되는 벽화
때로는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전국 사찰을 순례하면서 발품을 팔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알기 쉽도록 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340여 개의 벽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단숨에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가이드와 같은 책입니다.

벽화는 부처님 말씀을 축약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또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올컬러 / 양장본 / 780쪽 / 값 50,000원 / 문의 010-4037-3539
농협 정암사 817101-51-067379